

1990년대 전문 환경운동조직의 특성

구도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요약>

이 글은 1990년대 한국의 전문환경운동조직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제도화'라는 관점에서 그 특성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전문 환경운동조직 가운데 대표적인 세 단체, 즉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경실련·환경개발센터)의 역사와 조직, 이념, 참여자, 재정, 주요활동을 분석했다. 전문 환경운동조직은 조직이 커졌고, 재정이 튼튼해졌으며, 사회적 영향력도 매우 커졌다. 이념은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에 비해 현실주의적으로 변화했고 생태주의적 요소가 강해졌다. 이러한 전문 환경운동조직의 성장은 제도화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제도화의 정도를 판별하기 위한 다섯 가지 요인 즉 조직의 일상화, 합법적 자원동원, 조직목표의 체제순응 정도, 인적 자원의 포섭, 다른 조직과의 연결망 등을 분석한 결과, 세 단체는 모두 제도화 과정을 밟아왔다. 이 가운데 경실련(환경개발센터)이 가장 제도화되었고, 다음으로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의 순으로 제도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1990년대 전문 환경운동조직들은 제도화 과정을 통해 얻은 사회적 권력을 바탕으로 제도 안팎의 저항을 조직하는 한국사회의 새로운 사회운동 모델을 창조했다.

The Professional Environmental Movement Organizations in Korea in the 1990s

Ku, Do-wan

Research Fellow, Korea Environment Institute

<Abstract>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environmental movement organizations during the 1990s period in South Korea, in terms of "institutionalization". We analyzed histories,

organizations, ideology, participants, and fundings of the 3 major environmental movement organizations,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KFEM), Green Korea, and Environment and Development Center in Citizens' Coalition for Environmental Justice(CCEJ). In the 1990s, the 3 organizations got greater members, were successful in fund raising, and became very influential in environmental politics. Radical ideology changed to realistic, modest and ecological. We found that the environmental movement organizations became influential in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We analyzed the 5 factors measuring "institutionalization" that are routinization of organizations, legal resource mobilization, modest organization programme, co-optation, network with other organizations. We found that CCEJ was the most institutionalized and KFEM was less institutionalized. However, environmental movement organizations were not totally institutionalized. They made environmental issues on the social, political agenda and created new type of environmental politics of civil society in South Korea.

1. 서론

우리나라 환경운동은 1980년대 싹트기 시작하여 1990년대에 들어 크게 발전했다. 공업화와 민주화가 급속히 진행된 만큼 환경운동의 성장 속도도 매우 빨랐다. 지역조직의 수가 크게 늘어났고 회원수도 급증했으며, 언론 보도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점만 본다면 1990년대 환경운동은 크게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급속한 성장에 따른 비판도 적지 않았다. 조직의 비대화, 관료화를 우려하는 소리도 들리고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비판도 있다. 또한 사회운동의 제도화 과정을 겪으며 기존 사회체계에 대한 제도 밖의 운동으로서의 특성을 잃어버린 '개량주의운동'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 글은 1990년대를 보내면서 한국의 시민사회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전문 환경운동조직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그 특성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전국적 규모의 전문 환경운동조직¹⁾부터, 한시적인 쓰레기 매립장 주민대책위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의 환경운동조직이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왜 전문 환경운동조직을 분석대상으로 택했는가? 1990년대 환경운동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전문 환경운동조직이 그 전형적이고 새로운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조직들은 이슈, 이념, 자원동원방식 등 여러 면에서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 혹은 민족민주운동과 차이를 보인다.

이 글은 전문 환경운동조직 가운데에서도 대표적인 세 단체인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그리고 환경정의시민연대(구 경실련 환경개발센터)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이 세 단체에 대한 분석으로 1990년대 환경운동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 YMCA, YWCA 등 기존 시민운동조직은 물론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와 같은 단체들도 환경운동을 주요사업으로 벌이고 있고 환경과공해연구회, 그린체밀리운동연합 등 많은 단체들이 환경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단체를 분석대상으로 택한 것은 이 세 단체의 활동이 1990년대 전

1) 전문 환경운동조직이란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조직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운동조직을 말한다. 환경과공해연구회와 같은 전문가 환경운동조직은 전문 환경운동조직에 포함되지만, 쓰레기 매립장 반대 주민대책위 등과 같이 일시적으로 조직된 후 이슈가 사라지면 활동하지 않는 조직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역조직으로서 지속적으로 조직적인 환경운동을 벌이는 조직은 여기에 포함된다.

문 환경운동조직의 전형적인 특성을 분석하기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 최대의 전국적 환경운동조직이고 녹색연합 역시 언론보도, 영향력 등의 면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운동조직 가운데 하나이다. 환경정의시민연대는 경실련 환경개발센터로 출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990년대 전문 환경운동조직은 자신들의 조직 이익을 위해 환경 이슈를 이용하는 제도화된 이익집단인가? 아니면 사회의 변혁이나 개혁을 위해 헌신하는 저항적인 사회운동조직인가? 이 글은 이 문제를 '제도화'의 개념으로 분석한다. 모든 사회운동은 제도화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자원동원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운동 자체가 민주화라는 열린 정치적 기회구조 안에서 비로소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1987년 정치적 기회구조가 변화하면서 사회운동 전체가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환경운동이 과연 제도화했는지 제도화했다면 어떤 측면이 그러한지, 단체별로 제도화 정도의 차이는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우리나라의 '신사회운동'의 대표로 간주되는 환경운동의 정치적 의미를 분석하는 데 필수적이다.

2장에서는 세 단체의 조직형태, 이념, 재정, 주요활동 등을 분석하고 3장에서 이들 조직을 중심으로 1990년대 환경운동의 특성을 분석하겠다. 4장에서 환경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고 5장에서 환경운동의 제도화 명제를 논하겠다.

2.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구 경실련 환경개발센터)

1990년대 들어 환경운동은 크게 성장했고 다양해졌다. 대표적인 특성은 새로운 형태의 대중적 전문 환경운동조직이 탄생했다는 사실이다. 환경운동연합(1993년 창립), 녹색연합(1993년 배달환경연합으로 창립) 등 전국적인 조직이 많은 회원을 모집하면서 대중적인 활동을 벌이는 조직으로 성장했다. 소수의 운동가, 활동가 중심의 조직에서 일반시민들이 광범하게 지지하는 시민운동으로 전환한 것이다. 정치적 기회구조가 점차 개방되면서 자원동원방식도 매우 다양해졌다. 행정부, 국회 등을 통한 압력행사, 다양한 시위방법을 통한 언론 동원, 생태기행 등을 통한 시민교육 등 전문화된 방법들이 개발되었다. 이슈도 공해문제 외에 수질, 대기질 등 생활환경 문제, 지구환경문제, 자연환경 보전문제 등 다양하게 확산되었다. 1980년대의 환경운동이 공해 피해 주민의 집단이주 문제와 같이 국지적 오염에 대한 사후적 대응이 중심이었던 반면 1990년대에는 지속가능한 도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대안, 지속가능한 교통 등 장기적인 정책에 대한 대안적인 전략을 탐색하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1987년 이전까지 활동적인 전문 환경운동조직은 10개 미만이었다. 그 가운데에서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단체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1987년 이후 사회운동이 전체적으로 성장하면서 환경운동조직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1991년 낙동강 폐놀오염사고를 계기로 환경운동조직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1) 환경운동연합

① 역사와 조직

환경운동연합의 전신은 1988년에 창립된 공해추방운동연합이다. 공해추방운동연합이 민중 중심의 저항적인 특징이 강했던 반면, 환경운동연합은 그 저항적 특성이 매우 완화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서울에 있던 공해추방운동연합, 그리고 연대관계에 있던 전국 각 지역의 7개 단체가 연합하여 1993년 4월 2일에 창립되었다(<http://kfem.or.kr>).

② 이념

환경운동연합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직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을 정복과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과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생명체로 본다. 따라서 인간에 대한 억압과 착취와 마찬가지로 환경에 대한 착취인 환경오염과 파괴를 반대한다. 환경위기의 원인은 국민의 소비양식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환경운동연합은 성장지향주의 경제운동, 환경오염의 대가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생산활동, 다국적 기업의 공해산업 진출 등 사회 구조적 문제에 그 주된 원인이 있다고 본다. 이런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적으로 지탱 가능한 사회건설을 대과제로 설정하고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구조의 친환경적 개조, 독점과 집중의 사회상황을 분배와 분산의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을 사회개혁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위기의 원인으로 국민의 소비양식보다 성장지향주의 경제운동, 환경오염을 대가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활동, 다국적 기업의 공해산업 진출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환경적으로 지탱 가능한 사회를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분배와 분산 중심의 사회개혁을 지향하고 있다.

③ 회원, 활동가 및 전문가 지원

환경운동연합의 회원은 1999년 9월 현재 전국적으로 약 5만명에 이른다²⁾. 이 가운데 서울지역의 회원이 약 2만8천명이다³⁾. 1993년 창립당시 회원이 약 7천명이었던 데 비해, 6년 만에 7배 정도로 회원이 늘어났다. 지역조직의 수는 1993년 12개에서 1998년에 32개(6개 준비위원회 제외)로 늘어났다. 상근활동가 수도 전국적으로 80명에서 180명으로 늘어났다. 이들 전문 활동가들은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조사, 전문가들의 조직, 시위 준비와 참여, 언론 홍보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IMF 경제위기가 몰아친 1998년에도 회원, 활동가, 지역조직의 수가 늘어났다는 사실은 이 조직이 경제위기라는 구조적 제약조건을 주체적인 노력으로 극복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경제위기가 환경운동을 위축시킨다는 가설의 반증 사례이기도 하다⁴⁾.

2) 이 숫자는 환경운동연합의 홈페이지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이 가운데에는 회비를 제대로 내지 않는 회원들도 포함되어 있다.

3) 서울지역 회원의 직업을 보면, 회사원 45.8%, 주부 16.8%, 교사 7.3%, 자영업 6.5%, 공무원 5.2%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 조사는 직업분류기준이 불명확하여 회원의 직업을 정확히 분류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환경운동연합, 1999, 「환경운동」, 1999년 11월호, p.59).

4) 환경운동은 경제위기의 시기에도 크게 위축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때, 환경운동이나 환경에 대한 관심이 쉽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한 다운스(Anthony Downs)의 '이슈 관심 주기 가설'은 한국 사례에서는 맞

<표 1> 환경운동연합의 연도별 현황

연도 구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회원수(전국)	7,000	10,000	12,000	15,000	35,000	50,000
상근활동가 수(전국)	80	100	120	150	150	180
상근활동가의 평균 월급여액(원)	-	100,000	200,000	300,000	500,000	600,000
지역조직의 수*	12	17	20	24	28	32

* 지역 준비위원회는 제외

출처: 환경운동연합 내부자료

상근 활동가의 평균 급여액을 보면 이들이 매우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994년에는 월 급여가 겨우 10만원 정도로 기본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했다. 급여는 1996년까지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았고 1997년 이후부터 비로소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많아졌다.⁵⁾

환경운동연합에는 교수, 변호사, 의사, 배우, 방송인, 종교인 등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참여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사회운동에 대한 국가의 억압이 점차 완화되면서 활발해졌다. 환경운동연합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서울시장 등 정부의 요직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었다.

④ 재정

환경운동연합의 재정은 지역별로 독립되어 있다. 1998년의 경우, 1년 예산은 2천만원 정도에서부터 12억원까지 다양하다. 중앙조직⁶⁾의 연도별 예산을 살펴보면, 1993년에 약 3억 정도의 예산이었으나 1995년까지 증가하다가 1996년에 약간 감소한 후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표 2> 중앙(서울 지역 포함) 환경운동연합의 예산 현황

연도 구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수입(백만원)	295	402	1,092	1,035	1,139	1,242
지출(백만원)	293	400	1,096	1,033	1,102	1,195
전체 수입에 대한 회비수입 비율(%)	37	55	35	35	50	50

1998년의 경우 중앙조직의 예산은 1,242백만원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회비 및 후원금이 619백만원으로서 전체의 5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회원으로부터 회비 및

지 않는다.

5) 환경운동연합 실무자와의 인터뷰(1999. 9. 6.)

6) 중앙조직과 서울 환경운동연합의 예산은 1999년 현재 통합 운영되고 있다.

후원금으로 모든 경비를 지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⁷⁾. 그러나 아직은 그 비율이 절반에 불과하다⁸⁾. 기업으로부터의 후원금은 환경음악회에 대한 지원 등의 명목으로 재정사업 수입으로 분류된다. 재정사업 수입에는 명절 때 농산물 판매, 후원의 밤 후원금 등도 포함된다. 정부로부터의 지원은 대개 프로젝트의 수주 형태로 이루어진다.

<표 3> 중앙 환경운동연합 수입내역(1998)

수입내역	금액(백만원)	비율(%)
회비 및 후원금	619.3	49.8
재정사업 수입	264.4	21.3
프로젝트 수입	207.1	16.7
교육사업 수입	110.5	8.9
정책사업 수입	32.8	2.6
기타	8.5	0.7
합계	1,242.6	100

출처: 「환경운동연합 제7차 대의원 총회 자료」(1999. 2. 20)

재정문제는 환경운동조직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992년에 공해추방운동연합이 '유엔 환경개발회의 한국위원회'를 주도적으로 준비하면서 재벌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받기로 결정하자, 조직 내부에서 심한 반발이 일어났다. 비판자들은 '공추련이 다국적기업과 제국주의의 환경오염에 반대하여야 함에도 재벌기업의 후원금을 받아서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러한 내부 갈등은 언론에도 보도되었고 결국 비판자들이 조직을 떠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이 이후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음악회, 연구사업 등을 통해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왔다.

⑤ 주요활동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은 첫째로 환경오염 지역 주민지원활동이다. 환경오염 피해 지역에 대한 자료 제공, 교육, 연대활동 등을 벌여 왔다. 쓰레기 소각장, 골프장 반대운동, 댐 건설 반대운동 등 다양한 환경 이슈에 대해 지역주민과 연대하여 환경보전활동을 벌여 왔다. 두 번째로 이 조직은 자연보전활동을 벌이고 있다. 산림 보호, 야생동물 보호, 갯벌 보전 등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운동이 중요한 사업이다. 세 번째로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 환경운동단체 중 가장 일관되게 반핵운동을 벌이고 있다. 핵 발전소, 핵 폐기물 처분장 반대운동은 물론 대안적인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활동도 벌이고 있다. 네 번째로 시민환경정보 센터를 통해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월간 「환경운동」을 발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인 환경운동단체들과 연대활동을 벌이고 있다. 기후변화협약, 람

7) 1998년의 경우,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의 비율은 60% 정도였다(환경운동연합 회계 담당자와의 인터뷰, 1999. 9. 3.)

8) 회비를 제외한 수입이 모두 기업이나 정부로부터 들어 온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 협약 등의 당사국 회의에 민간단체로서 참여하였고, 반핵운동에도 국제적인 연대를 이루어왔다. 특히 1997년에는 대만의 핵폐기물 북한 수출 반대운동을 미국의 그린피스 등 국제단체와 함께 벌여서 성공을 거두었다. 이외에도 일본의 플로토늄 수송 반대운동 등을 통해 반핵운동을 국제적으로 벌이고 있다.

2) 녹색연합

① 역사와 조직

녹색연합은 1991년 6월 창립된 배달환경연구소로부터 그 연원이 시작된다.⁹⁾ 1993년 3월에는 배달환경연합이라는 전국조직이 결성되었고 1994년 4월에는 대한녹색당창당준비위원회, 푸른한반도되찾기시민의모임(1991년 6월 창립)과 통합하여 배달녹색연합으로 재창립하였다. 녹색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은 1996년 4월이다¹⁰⁾. 1999년 현재 창립준비조직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11개 지역조직이 있고 회원은 약 15,000명에 이른다.

② 이념

녹색연합은 그 전신인 배달환경연구소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민족주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다. 이 조직의 설립목적에는 ‘배달민족’, ‘금수강산’과 같은 용어들이 등장한다 (<http://www.greenkorea.org>).

녹색연합은 배달민족 유일한 삶터인 금수강산을 오염으로부터 되찾고, 나아가 대안문명운동으로서의 녹색생명운동을 널리 펼쳐, 궁극으로 자연과 인간이 하나되어 살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과 그에 바탕한 녹색대동세상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운동연합이 산업구조의 개조, 분배의 개선 등 사회구조의 문제를 중시하는 반면 녹색연합은 대안문명으로서 녹색생명운동을 보다 중시하고 있다.

③ 회원, 활동가 및 전문가

녹색연합의 회원은 1993년 창립 당시 약 3,800명이었으나 1998년에는 약 15,000명 정도로 늘어났다. 상근 활동가의 수는 1993년 당시 10명 내외였으나 1998년에는 약 40명으로 늘어났다.

④ 재정

녹색연합은 다른 환경운동조직이나 시민운동조직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기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자선단체나 시민운동단체에 회비를 정기적으로 내는 문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권위주의 정부 아래에서 사회운동 자체가 오랫동안 억압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은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녹색연합은 배달환경연구소를 통해 연구사업을 적

9) 이 연구소의 소장은 장원 대전대 교수였고, 이사장은 노유희 환경대학원 교수였다.

10) 녹색연합은 1999년 현재 강문규, 노유희 공동대표, 장원 사무총장, 김제남 사무처장, 그리고 차명제 녹색연합배달환경연구소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극적으로 진행해 왔다. 아울러 회원수를 늘리고 회비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1999년도에는 은행자동이체제도를 도입하여 고정적인 회비 납부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회원 확보를 위해 녹색연합은 라디오 광고, 회원 확보 행사, 거리 캠페인 등을 벌여 왔다.¹¹⁾

녹색연합본부는 1998년 예산을 852백만원으로 잡았으나 실제 수입은 242백만원이었다. 이 가운데에 회비가 64백만원 후원금이 53백만원이었다. 회비와 후원금을 합하면 전체예산의 45%에 이른다. 1998년은 경제위기가 매우 심각한 시기였으므로 녹색연합 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운동조직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1999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재정현황을 보면 수입 471,241천원, 지출 454,281천원, 부채 211,783천원이었고 회비를 비롯해 회원들이 내는 돈이 전체의 28%인 반면 프로젝트를 통한 수입이 30%로 오히려 많이 차지했다(장원, 1999: 181)

<표 4> 녹색연합본부의 수입내역(1998)

수입내역	금액(백만원)	비율(%)
회비	63.8	24.7
후원금	52.6	20.4
프로젝트/주제별 프로그램	58.2	22.6
교육 및 정책사업	21.1	8.2
자료실 운영	1.4	0.5
기타사업	45.6	17.7
잡수입	15.1	5.9
합계	257.9	100

출처: 「녹색연합 1999년도 전국 대의원 총회 자료집」(1999. 3. 6.)

⑤ 주요활동

녹색연합은 첫째로 지역주민 지원활동을 벌여 왔다. 이 단체는 쓰레기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만드는 데 기여하였다. 장원 사무총장은 김포 수도권폐기물매립장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집을 그곳으로 옮기고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주민들을 지원하였다. 둘째로 자연환경 보전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 깃대종 찾기운동, 백두대간 보전운동, 금강산 보전운동, 반달가슴곰 등 야생동물 보전운동을 벌여 왔다.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활동 등 깃대 보존사업도 일관되게 진행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반입을 저지하는 활동을 벌여서 성공을 거두었고, 남북환경협력사업도 조직했다. 생명공학, 유전자 조작에 대한 반대활동을 벌여 왔고,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월간지를 통해 녹색대안 문화운동을 벌이고 있다.

11) 녹색연합은 배달환경연구소 등 산하기관과 예산을 통합운영한다(녹색연합 실무자와의 인터뷰: 1999. 9. 4.)

3) 환경정의 시민연대(구 경실련 환경개발센터)

① 역사와 조직

환경정의 시민연대는 1992년 11월 14일에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환경개발센터라는 이름으로 창립되었다. 이 조직은 1998년 11월 30일에 사단법인 경실련 환경정의 시민연대로 이름을 바꾸고 1999년 9월 7일에 경실련으로부터 독립하였다.

이 조직은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운동 조직인 경실련이 경제정의와 함께 환경문제를 조직의 중심과제로 설정하면서 탄생하게 되었다. 1991년 3월에 일어난 낙동강 페놀오염사고와 1992년 6월의 유엔 환경발전회의가 이 조직의 탄생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환경개발센터라는 이름은 유엔 환경발전회의에서 확립된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받아들이기 위해 그렇게 지어졌다. 초기 창립 멤버들은 경제성장과 환경의 조화를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였다.

이 조직은 경실련 산하단체로 있는 동안에는 독자적인 회원조직이 없이 전문연구집단(생크탱크)과 같은 형태로 활동했다¹²⁾. 그러나 경실련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별도의 회원조직을 모색하고 있다.

② 이념

경실련 환경개발센터는 설립취지문에서 “새로운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찾는 문화운동이라는 토대 위에서 환경운동을” 벌여 나가고 “근본적인 변혁을 가능하게 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현단계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일은 환경관리라는 개념에 입각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정부 및 기업과의 대화를 통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는 형태”라고 밝혔다(구도완, 1996: 193-95). 이러한 설립 취지문의 담화에서 우리는 대안적인 문화체계를 지향하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목표와 단기적인 환경관리주의적인 목표가 긴장되게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998년 11월에 환경정의시민연대로 이름을 바꾸면서 제시한 환경이념은 1992년의 그것과는 약간 차이를 보인다.

환경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무엇이든 부족하면 무조건 공급을 늘리는 정책방향에서 벗어나 효과적으로 수로를 관리하는 친환경적인 사회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는 길입니다. 지구환경을 이용해서 얻어지는 혜택과 책임은 전지구인의 몫입니다. 국가, 계층, 그리고 세대간 공평한 이용과 편중되지 않은 책임을 다함으로써 환경적으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실련 환경정의시민연대는 수요관리를 통한 환경친화적인 사회경제체제, 다양성과 형평성을 기반으로 한 환경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경실련 환경정의시민연대, 1998: 8).

위의 글에서는 1992년에는 없었던 수요관리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공급위주의 사회경제체제에서 수요관리체제로 바꾸어 나간다는 주장은 자본주의의 확대재생산 체계로부터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체제로 변화시켜나가야 한다는 주장과 연결된다. 아울러 국가, 계층, 그리고 세대간의 정의를 주장하여 평등의 문제를 환경문제와 연결시키고 있다¹³⁾. 이런 측면

12) 환경정의시민연대는 1999년 9월 현재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15개 지부가 있다

13) 여기서 환경정의가 자원 이용의 형평성과 환경오염 피해의 정당한 분배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보다 넓은 의미의 사회적 평등을 의미하는지는 불명확하다.

에서 환경정의시민연대의 담화는 1980년대의 평등 지향적인 담화와 1990년대의 지속가능성 담화가 결합되어 있다.

③ 회원, 활동가 및 전문가

환경정의시민연대는 1999년 8월까지 경실련의 일부조직이었으므로 별도의 회원조직은 없다. 상근활동가는 약 20명에 이른다. 환경정의 시민연대는 원래부터 전문적인 대안제시를 목표로 창립되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정책위원회는 도시환경분과, 물분과, 법제도분과, 생태분과, 에너지 분과, 폐기물분과, 해양분과, 환경경제분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④ 재정

환경정의시민연대는 1998년부터 경실련으로부터 독립하여 재정을 운용하였다. 1998년에는 수입이 153백만원, 지출이 167백만원이었다.

⑤ 주요활동

환경정의시민연대는 주로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제시를 주요활동으로 해 왔다.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친환경적인 국토이용을 위한 제도개선 활동이다. 1993년에는 정부가 국토이용관리법을 개발 중심으로 개정하려는 데 대해 반대활동을 벌였으나 관철시키지는 못했다. 1996년 12월에는 정부의 “반환경적 규제완화”를 반대하기 위해 교수 1백인 서명운동을 벌였다. 또한 「자연의 보전과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를 발간했다. 1996년에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완화조치가 일어나자 이를 반대하기 위해 여러 환경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그린벨트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연대’를 결성했다. 이 조직은 1998년 김대중 정부가 그린벨트의 해제방안을 추진하자 ‘그린벨트 살리기 국민행동’으로 이름을 바꾸고 정부정책을 비판해 왔다. 환경정의시민연대는 ‘그린벨트 살리기 국민행동’의 간사단체로서 ‘그린벨트 살리기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둘째로 이 조직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대안을 모색해 왔다. 「효율적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사회적 기반 개발」이라는 연구보고서도 발간했다. 1996년 7월에는 ‘1995 장기 전력수급계획 및 수요관리정책평가’ 토론회를 조직했고, ‘에너지 절약 시민실천 지침서’도 발간했다.

셋째로 수질오염문제와 공급위주의 수자원 개발정책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왔다. 이외에도 쓰레기 재활용, 감량화 문제, 소각장, 매립장 문제들을 제기하여 자원순환형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넷째로 국제 연대활동으로서 동아시아대기행동네트워크(AANE)를 결성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이동성 대기오염문제와 기후변동 문제에 대한 NGO 협력 체계를 만들었다. 전반적으로 환경정의시민연대는 정부가 환경훼손을 일으키는 법률을 제정, 개정할 때 이에 대한 반대운동을 조직하거나 대안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했다.

3. 1990년대 전문 환경운동조직의 특성

1) 운동의 주체

1990년대 환경운동의 중심은 '시민'이다. 우리사회에서 그 소리와 의미가 명확하지 않았던 '시민사회'의 '시민'이 운동의 중심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의 회원은 창립 당시 수천명에 불과했지만 5년 만에 각각 5만명과 1만5천명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와 같이 기부금을 정기적으로 시민단체에 내는 문화가 없던 나라에서 단기간에 수만명의 회원을 가진 단체들이 성장했다는 사실은 매우 인상적이다. 세 단체 중에서 환경운동연합이 회원조직에 있어서 단연 앞서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다양한 회원확대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회원을 늘려 왔다.

환경운동의 중요한 주체는 회원 외에 상근 활동가와 전문가 집단이다. 그 중에서도 환경운동의 꽃은 상근 활동가이다.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활동가들 가운데에는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학생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 출신이 많다. 40대와 50대의 활동가들 가운데에는 1970년대와 80년대 민주화운동을 실천한 사람들이 많다. 30대 활동가들 가운데에는 1980년대 학생운동을 통해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이념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많다. 상근 활동가들은 아마 추어 운동가로부터 전문 운동가로 성장했고 점차 운동의 전략과 전술을 개발해 왔다.

환경운동의 또 다른 중요한 주체는 전문가 집단이다. 1980년대 억압적인 정치구조가 1990년대 들어 점차 완화되면서 전문가들의 참여가 활발해졌다¹⁴⁾. 환경운동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도시계획학, 철학 등 인문사회과학은 물론 환경공학, 생태학 등 자연과학 등 그 전공들이 매우 다양하다. 이 뿐만 아니라 문학인, 배우, 가수, 화가 등 다양한 직업의 전문가들이 환경운동을 지원하고 있다.

겉으로 볼 때 환경운동단체는 많은 회원을 자랑하지만, 단체의 회원 수에는 실제 회비를 내지 않고 소식지만 받아 보는 회원도 포함되어 있고, 회비만 낼 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회원도 많다. 단체들은 회비를 내지 않는 회원들도 일정 기간 동안 회원으로 관리한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그러면 1990년대 환경운동은 정말로 '시민 없는 시민운동'인가? 시민 있는 시민운동은 어떤 것일까? 물리적으로 통합된 사업장을 가진 노동운동조직과 달리 환경운동은 흩어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조직해야 하는 조직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운동조직과 환경운동조직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참여의 질적 특성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다. 환경운동은 동일한 생산조직 상의 노동자들을 조직하듯이 장소귀속적으로 조직을 만들기는 힘들다. 그러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연결된, 느슨하지만 잘 조직된 '지지의 연대'는 노동운동과는 다른 힘을 가질 수 있다¹⁵⁾. 환경운동연합이나 녹색연합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회원들을 바로 시위에 동원할 수 있는 물리적 힘 때문이라기 보다는 회원들의 지지를 동원할 수 있는 잠재적인 힘과 도덕적 헤게모니¹⁶⁾ 때문이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노동운

14) 녹색연합의 경우 실무 총책임자인 장원 사무총장이 환경공학과 교수이고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의 이시재 소장은 현직 사회학과 교수이다. 환경정의시민연대의 이정진 공동대표는 경제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15) 노동운동이 장소귀속적 특성이 강한 반면, 환경운동은 가치귀속적인 특성이 강하다. 이러한 특성은 중앙의 전문 환경운동조직에서 특히 잘 나타난다.

16)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는 물리적 강제력보다 지적 도덕적 지도력인 헤게모니의 중요성을

동이 '조직적 이기주의'라는 이데올로기적 낙인으로 고통받는 반면, 환경운동은 '보편적 가치의 수호자'라는 상징을 갖고 있다. 즉 환경운동은 지구환경위기와 같은 긴박한 위기와 이에 대한 전지구적인 연대라는 보편적 지위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 환경운동조직이 비록 행동으로 동원할 수 있는 회원의 수는 작다 하더라도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을 많이 확보한다면, 시민사회에서 도덕적, 조직적 힘을 크게 발휘할 수 있다.

2) 자원의 동원

1990년대 환경운동의 중요한 특징은 정부와 기업을 결사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새로운 자원동원방식이 자리를 잡았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1980년대 공해추방운동연합은 회원의 확보보다는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과 환경문제에 대한 홍보에 많은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1990년대 환경운동연합은 제도 밖의 투쟁뿐만 아니라 제도 안의 압력 행사를 중요한 운동 방식으로 적극 사용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들어서는 언론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여 여론의 압력을 통해 정부정책이나 기업 활동을 개선하려는 전략이 주류를 이루었다. 언론을 이용하기 위해서 시각적인 효과를 위한 연출 기술이 발전했다. 세종로 이순신 장군 동상에 방독면 씌우기,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자동차 부수기, 시화호 방류 반대 해상시위, 동강댐 반대를 위한 퍼포먼스 같은 새로운 시위 형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다.

조직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회원의 수가 많지 않은 환경운동조직들은 언론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언론 지향적인 활동이 주가 되면서 환경운동조직들은 언론이 소비할 수 있는 이슈와 행동양식에 자원을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만약 언론이 환경운동조직의 활동을 전혀 보도하지 않는다면 환경운동의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에 환경운동의 어려움이 있다. 만약 환경운동조직이 뉴스 가치를 좇는 언론만을 지향한다면, 제도 밖의 저항이라는 사회운동의 의미는 크게 약화될 것이다.

3) 조직

전문 환경운동조직은 매우 급속히 커졌다. 어떤 이들은 환경운동조직이 커지면서 정부나 기업을 닮아 관료화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 어떤 이들은 환경운동조직이 백화점 식으로 너무 많은 이슈를 다룬다고 비판하기도 한다¹⁷⁾.

이러한 비판에 대해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정부와 기업이 크기 때문에 우리도 더욱 커져야 강력한 힘을 갖고 대응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또한 '특정한 이슈에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이슈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에는 작은 환경운동조직이 큰 조직보다 훨씬 많다. 그러나 영향력 면에서는 앞에서 본 세 조직의 영향력이 상당히 큰 편이다. 미국이나 서유럽 환경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 환경운동조직이 그리 크지는 않다. 그러나 짧은 역사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보면 우리나라 환경운동조직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한 것이 사실이다.

더욱 강조했다.

17) 1990년대 중반,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말을 인용하며 환경운동조직의 비대화를 비판하기도 했다.

나는 '환경운동조직이 얼마나 큰가'보다 '그것이 얼마나 내적인 균형과 활력을 갖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환경운동과 평화운동으로부터 발전한 독일의 녹색당은 '반정당 정당(anti-party party)'으로서 내부 관료화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 운동조직으로서의 전문성¹⁸⁾을 키워 나가되 관료화를 막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¹⁹⁾.

4) 이념

조직의 목표에 나타난 세 단체의 이념은 유사성 속에서 약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위기의 원인을 성장지향주의, 이윤추구, 다국적 기업 등 사회구조의 문제로 진단한다. 해결책으로는 '산업구조의 친환경적 개조', '분배와 분산으로의 사회개혁'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환경을 생명체로 본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녹색연합은 '대안 문명운동으로서의 녹색생명운동'을 펼쳐 궁극적으로 대안적인 문명을 만들어 새롭게 자연과 인간이 일체가 되는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반면 환경정의 시민연대의 1998년 담화는 보다 구체적이다. 즉 공급위주의 사회경제체제에서 수요관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고 집단간의 형평성을 통해 환경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세 단체의 담화에서 우리는 1990년대 환경운동조직들이 생태주의적 이념을 수용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인간중심주의적 관점에서 환경친화적 사회를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산업구조와 사회개혁 등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목표를 조직의 목표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은 다른 단체와 차이를 보인다. 경실련 환경개발센터의 담화는 환경관리주의 경향을 강하게 갖고 있었으나, 환경정의시민연대는 환경정의라는 개념을 끌어들이 전통적인 해방정치의 담화와 생태주의의 담화를 결합시키려고 하고 있다. 두 이념을 실천 속에 결합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1990년대 전문 환경운동조직의 이념에서 좌파환경주의가 사라지고 생태주의가 급속히 성장한 것은 1990년대 노동운동과 민중운동이 이념적 헤게모니를 장악하지 못한 것과 깊은 관련을 갖는다. 사회주의 체제의 쇠퇴 이후 학생운동은 대중적 지지를 상실했고, 노동운동은 사회운동 전체의 지적 도덕적 지도력을 갖지 못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전문 환경운동조직은 반자본주의, 반시장경제 이념을 철회하고 생태주의 담화를 적극 수용하게 되었다.

5) 이슈와 활동

1990년대 환경운동의 중요한 이슈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이슈들이다. 수질오염, 대기질 오염문제, 악취, 폐기물 등 생활주변의

18) 이것은 학문적 전문성이 아니라 문제를 판단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기 분야의 최고 권위를 가진 학자도 환경운동에 있어서는 상근 활동가에 비하면 아마추어 자원봉사자일뿐이다.

19) 관료주의는 목적의 정당성에는 의문을 갖지 않은 채 그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길에만 관심을 갖는다. 환경운동이 비대해지면서 내부 민주주의라는 소금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조직의 자기 생존을 위한 활동으로 변질될 수 있다. 보다 많은 회원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사업을 벌이거나, 활동범위를 스스로 위축시킬 수도 있다. 환경운동의 제도화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라는 소금이 언제나 필요하다.

환경문제가 1990년대 중요한 환경문제로 다루어졌다. 쓰레기 소각장의 다이옥신 문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상하류 주민 협의,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운동과 같은 이슈들을 환경운동 단체들은 사회적 의제로 만들었다. 특히 쓰레기 재활용운동은 환경운동단체들이 처음 문제제기를 하고 실천 프로그램을 만든 후,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 들여 쓰레기 종량제를 정착시켜 하나의 성공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방지 및 개선문제는 장기간의 투자와 감시체제가 갖추어져야 하므로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루지는 못했다.

둘째로 갯벌, 멸종위기 야생 생물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운동이 크게 확산되었다. 환경운동단체들은 시화호 사업을 통해 갯벌 오염이 얼마나 중요한 생태적 파괴를 남는지 확인하고,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는 활동을 벌여 왔다. 또한 동강댐²⁰⁾ 반대운동을 통해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성공했다. 동강댐 반대운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천연기념물 비오리, 백룡동굴, 어라연’ 등 자연환경의 아름다움과 대체 불가능성이었다. 이외에도 골프장 반대운동을 통해 산림보호운동을 벌였고, 백두대간 보전운동도 추진하고 있다.

셋째로 장기적이고 지구적인 환경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 왔다. 전문 환경운동조직들은 리우에서 열린 유엔 환경발전회의나 기후변화협약과 같은 국제적인 환경협약 관련 회의에 NGO로서 정부와 독립적으로 참여해 왔다. 1992년의 유엔 환경발전회의 참가는 우물안 개구리였던 우리나라 환경운동단체들이 세계적인 시민사회의 일원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이후 중요한 국제회의에 환경운동단체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1997년 12월에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3차 당사국회의에는 우리나라 환경단체들이 정부입장과 다르게 ‘한국이 빠른 시간 내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²¹⁾ 1999년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람사협약 회의에도 환경단체들은 대표를 파견하여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입장을 이끌어 내는 데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넷째로 전문 환경운동조직들은 에너지 정책에 대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반핵운동은 대표적인 예가 된다. 환경운동단체들은 원자력 발전이 지속가능한 에너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안면도 핵폐기물처분장 반대운동에서 시작하여 굴업도 핵폐기물처분장 반대운동에 이르기까지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원자력 발전 전략에 영향을 미쳤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오랜 기간 동안 핵폐기물처분장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반핵운동이 원전의 추가건설을 막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정부는 기존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추가로 원전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원자력발전 전략을 수행하고 있다.²²⁾ 환경운동단체들은 원자력의 위험성과 비경제성을 홍보하는 데에는 성공하였으나 정부의 원자력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는 데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환경운동조직들은 재생가능 에너지 대안을 제시하여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전환시키도록 노력하고 있

20) 공식 명칭은 영월댐이지만 운동단체들은 동강의 생태적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동강댐이라는 용어를 썼고 이 때문에 동강댐이라는 말이 더 일반적으로 쓰이게 되었다.

21) 이 회의에 참석한 한국의 환경운동 예술가 최병수는 회의장 앞 마당에 펭귄의 얼음조각을 전시하고 ‘펭귄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한국 환경운동단체들은 교토에 있는 미국 다국적 기업의 주유소를 기습적으로 점거하고 온실가스 삭감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기도 하였다.

22) 핵폐기물처분장 건설에 비해 기존의 원전부지 주변의 추가 원전 건설 사업은 주민들에게 훨씬 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위험성에 대한 수용이 한번 이루어지고 나면 추가적인 위험성에 대해서는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쉽게 수용되는 경향이 있다.

다.

마지막으로 1990년대 들어 정부의 법안, 정책, 계획 등에 대한 감시, 압력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국토이용관련 법, 개발제한구역 제도, 도시계획 관련 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 정책, 계획 등에 대해 감시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이 활발해졌다.

이렇게 보면 1990년대의 환경운동은 이슈가 매우 다양해지고 풍부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생활환경은 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자기 이해관심과 바로 연결된다. 이러한 이슈는 운동의 초기에 대중을 동원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반면 자연환경 보전은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장기적이고 심미적이며 이해당사자도 넓게 퍼져있다. 때로는 나의 직접적인 이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 때문에 1970년대 말, 1980년대 초, 낙동강 하구언 반대운동 때 반환경운동의 구호였던 '철새가 밥 먹여주냐'라는 담화가 지배적인 담화로 사회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중심주의, 경제중심주의 담화가 1990년대 말, 동강반대운동 때에는 '동강의 비오리가 밥 먹여 주냐?'라는 구호로 재생산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장기적이고 보편적인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크게 늘어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기후변화, 에너지 대안, 환경친화적 국토이용과 도시계획 등 그 이해관심이 구체적이지 않고 매우 장기적인 시간 차원을 가진 이슈는 환경운동이 다루기에 여전히 어려운 이슈로 남아있다. 예를 들면 개발제한구역 토지소유자들은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심에 바탕을 두고 잘 조직되어 있는 반면, 일반시민들은 그렇지 않다. 이 때문에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라는 이슈는 환경단체들에게 매우 힘든 과제로 남아 있다. 환경운동조직이 조직된 사회적 이익의 옹호자들과 공중을 함께 설득하여 사회적으로 공평하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대안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4. 평가

1) 세 단체의 비교

세 단체의 활동을 비교해보면 유사성 속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환경운동연합은 반핵운동을 일관되게 벌여왔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이 현대 과학기술문명의 기술낙관론의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반대를 통해 사회의 변형을 추구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환경운동연합은 사회개혁을 지향하는 시민운동과도 적극 연대해왔다. 환경운동연합의 주축이 1970년대부터 민주화운동을 실천했던 세력이고 이후에도 사회민주화운동과 깊은 연관 속에서 발전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어 왔다. 환경운동연합은 공추련으로부터 재창립하면서 이념적으로 크게 변화했지만 민주화운동을 비판하는 대안세력으로 등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녹색연합과 경실련은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비판세력으로 등장했다. 경실련은 1980년대의 사회운동이 '대안 없는 비판'만을 해왔다고 비판하면서 대안 제시세력으로서 자신들을 부각시켰고 이러한 전략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경실련 환경개발센터는 주로 환경과 개발의 조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²³⁾. 녹색연합도

‘과거의 과격한 공해추방운동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환경운동’을 지향하면서 창립되었다. 녹색연합은 다른 사회운동과의 연대보다는 환경운동에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조직의 목표와 리더십의 차이가 실제 활동에서도 차이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조직의 중심 세력의 인맥과 깊은 연관을 갖는다. 어떤 조직에 사람들이 참여하는 동기는 이념적인 선호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인적 유대관계이다. 사람에 대한 신뢰가 그물망처럼 엮이면서 신뢰의 그물망을 형성하고 그것이 조직의 힘으로 발현된다. 세 조직의 이념과 인맥의 차이는 오늘날에도 유사성 속의 차이로 남아있다.

2) 1990년대 전문 환경운동의 성과와 한계

1990년대 전문 환경운동은 여러 가지 성과를 이루었다. 첫째로 시민들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시민운동조직의 틀이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어졌다. 수만명의 회원을 가진 조직이 약 10년만에 생겼다는 사실은 ‘환경’이라는 상징이 단지 상징이 아니라 실천을 조직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또한 우리나라 시민사회가 활기차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환경운동은 국민들의 환경의식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1990년대에 환경에 대한 관심과 환경주의 가치가 크게 확산되었다(구도완, 1999). 이것이 환경운동의 결과인 것만은 아니지만 환경운동조직들이 여러 자원을 동원하여 환경을 사회적 이슈로 만든 것이 환경의식의 확산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1990년대 들어 원자력의 위험성, 자연환경의 중요성, 쓰레기에 대한 사회적 책임,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경제성장에 대한 환경보전의 상대적 중요성 등 여러 쟁점에서 환경주의적인 담화가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셋째로 환경운동은 정부정책의 개선에 기여하였다. 환경관련 법령의 강화와 환경행정의 확대에 환경운동조직이 기여한 바는 적지 않다. 환경운동조직은 정부 내에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환경부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1998년, 팔당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팔당대책’을 둘러싸고 지자체간, 그리고 지자체와 환경부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환경단체들은 환경부의 수질관리대책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이 부분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하더라도 정부의 정책을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획기적이고 일관되게 전환시키지는 못했다. 김영삼 정부 초기에는 준농림지의 개발을 대폭 허용한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을 막지 못했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막는 데 실패했다.

넷째로 환경운동조직은 전지구적인 시민사회의 중심세력으로 성장하였다. 기후변화협약, 람사 협약 등 국제협약 당사국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일본의 플로토늄 해상 수송 반대, 대만의 핵폐기물 북한 수출 반대 등 다양한 이슈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였다. 이리하여 1990년대 환경운동은 지구 시민사회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하였다.

1990년대 환경운동은 성과와 함께 여러 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 우선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가 1980년대에 비교하면 현저히 늘었지만 여전히 미약하다는 점이다. 회비를 정기적으로 내는 회원수가 많은 조직이 별로 없고 지역조직도 튼튼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회비를 내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조직하는 일도 과제로 남아 있다. 회원의 참여 부족은 재정구조의 취약성으로 연결된다. 회비 내는 회원의 수가 한정되어 있고, 재정구조가 취약하

23) 경실련 환경개발센터는 반핵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지 않았다.

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근 활동가들이 많이 있다. 상근 활동가들의 생활과 새로운 사업을 위해 환경운동조직은 별도의 재정사업을 벌이거나 기업이나 정부로부터 후원금을 받아왔다. 시민사회가 공적 이익을 위해 사회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가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재정 자립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풀뿌리 지역조직이 견고하게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전문환경운동조직은 우리 사회와 지구를 지탱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장기적인 전망과 프로그램을 갖지 못하고 있다. 생명, 대안적 문명, 사회구조 개혁과 같은 담화는 있으나 그것을 지지하는 사회체계에 대한 전망도 없고 새로운 사회를 위한 실천 프로그램도 없다. 설 새 없이 터지는 환경사건들을 뒤쫓아 가고, 정부의 개발정책에 탄지를 거느라 여념이 없었다. 전문 환경운동조직이 우리 사회를 새롭게 개혁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전망과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²⁴⁾.

5. 전문 환경운동은 제도화되었는가?

맥카지와 졸드에 의하면 전문 사회운동조직들은 마치 기업과 같이 한정된 자원 즉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경쟁하는 사회운동산업(Social Movement Industry)의 일원이다 (McCarthy and Zald, 1977). 사회운동조직은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 그 규모가 커질수록 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든다. 운동조직은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대중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이슈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제도화 과정의 한 모습이다.

한국 환경운동에서 제도화 경향은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한 비판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²⁵⁾ 이러한 비판에 대해 장원 녹색연합 사무총장은 1999년 10월 6일, '생태적 고백'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에서 장원 사무총장은 "커진 조직의 운영과 선단식으로 확장된 수많은 사업들의 수행을 위해 정신없이 내달려 오면서 때로는 하지 않아야 할 프로젝트도 하고, 할 수 없는 프로젝트도 수행했다.... 생명운동의 본질과는 상관없이 돈을 벌기 위해, 언론에 나가기 위해, 품을 잡기 위해, 조직의 외형을 키우기 위해 때로는 '운동을 위한 운동'을 해 온 적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장원, 1999: 180-183).

모든 사회운동은 생애주기를 갖는다. 초기에는 카리스마적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에 의해 참 신자(true believer)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하지만 점차 조직체계에 의한 경영이 이루어지고 지배집단과의 상호작용이 증대하면서 저항의 강도가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정치적 기회구조, 조직의 자원동원능력과 이념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사회운동을 체제변혁운동과 동일시하고 체제저항형 운동²⁶⁾만을 사회운동으로 규정하는 관점

24) 다음으로 전문 환경운동은 제도화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문제는 별도의 장에서 논하겠다.

25) 안종주는 환경운동단체의 사회운동산업화에 대해 비판했다. "환경운동단체나 환경운동가들도.... 매스컴들이 좋아할 소재를 골라 이런 분야에 필요 이상으로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하지 않았는지, 또 환경운동은 그 어느 것보다도 견줄 수 없는 가치 있는 일이므로 활동비용을 기업이든 정부든 어느 곳으로부터 이런저런 명목으로 지원을 받아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지, 게다가 다른 환경운동단체보다 더욱 많은 일을 하기 위해 필요 이상의 조직, 확대에 돈과 힘을 쏟아 부은 것은 아닌지...(되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안종주, 2000)

26) 체제의 근본적인 변혁을 지향하는 운동을 말한다. 1980년대의 민족민주운동이 전형이 될 수 있다. 1990년대에는 전국연합, 민주노총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에서 본다면 사회제도 안의 모든 활동은 제도화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사회운동은 어느 정도의 제도화 과정을 밟고 있으므로 보다 분석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제도화를 크게 다섯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조직의 일상화, 합법적 자원동원, 조직목표의 체제순응 정도, 인적 자원의 포섭(co-optation), 다른 조직과의 연결망 등이 제도화를 판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김은미, 1999: 214-15).

첫째 조직의 일상화는 운동조직이 회원을 모집하고, 후원금을 모금하여 전문 사회운동가(상근활동가)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물적 근거를 갖는 것을 말한다. 둘째로 합법적 자원동원이란 자원동원방식을 합법적 활동에 국한시키는 것을 말한다. 운동조직이 제도화될수록 준법을 중시하고 주어진 틀 내에서 법안 개정운동이나 제도개혁을 추진한다. 정부의 자문위원회에 적극 참여하고 로비활동을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삼는다. 셋째로, 제도화된 운동조직일수록 사회체제에 순응하는 조직의 목표와 이념을 갖는다. 기존 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혁보다는 의식개혁운동, 제도 개혁을 운동의 목표로 삼는다. 넷째로 운동조직이 제도화할수록 주요 활동가가 정부에 참여하거나 정부와의 인적 유대를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제도화된 조직은 체제저항형 조직과 연대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보면 경실련은 출발부터 제도화 과정을 밟아왔다고 볼 수 있다. 경실련은 기존의 '운동권'을 끊임없이 비판하면서 대안제시운동, 제도안의 사회운동으로 자신들을 부각시켰다. 경실련은 제도화의 다섯 가지 요인 모든 측면에서 제도화된 운동조직의 특성을 보인다. 경실련은 저항조직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제도화된 것이 아니라 초기부터 제도화된 조직의 여러 특성을 갖고 있었다. 경실련의 하부조직으로서 경실련 환경개발센터도 이러한 특성을 공유했다²⁷⁾.

환경운동연합은 조직의 일상화, 인적 자원의 포섭 면에서 제도화가 일관되게 이루어졌다. 1993년 출범 이후 환경운동연합은 회원 확보를 위해 줄곧 노력해 왔고 그 결과 조직의 자립적인 물적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손숙 전공동대표가 환경부장관에 1999년 임명되었고, 고건 전공동대표는 국무총리를 역임했고 서울시장에 피선되었다²⁸⁾. 이런 점에서 본다면 환경운동연합은 제도화 과정을 밟아왔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은 제도 안의 자원동원뿐만 아니라 제도 밖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부에 저항해왔다. 시화호 사건, 새만금 간척 반대운동, 동강댐 반대운동, 핵폐기물 처분장 반대운동 등을 벌이면서 정부에 저항하는 제도 밖의 활동을 벌여왔다. 조직의 목표와 이념 면에서 보면 환경운동연합은 사회구조 개혁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나 산업주의의 근본적인 변혁과 같은 이념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연합, 참여연대, 노동운동조직 등 저항형 조직들과 사안별로 연대해왔다. 이 점은 환경운동연합이 제도화 과정을 밟으면서도 제도화되지 않으려는 노력을 계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해추방운동연합이라는 저항형 조직에서 출발했고, 민중운동세력과 인적 유대가 강하다는 점이 환경운동연합의 제도화를 약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녹색연합은 조직의 일상화를 추구해 왔으나 환경운동연합 만큼 성공하지는 못했다. 인적 자원의 포섭 면에서 보면, 강문규 공동대표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회장을 겸임하고 있

27) 환경정의 시민연대의 제도화 문제는 현재로서는 분석하기 힘들다.

28) 이러한 인적 포섭은 사회운동가의 정치권 진입이라기보다는 명망가의 영입 전략으로 설명하는 것이 옳다. 명망가, 행정관료 출신 인사 등을 공동대표 등 간부로 영입하는 전략 자체가 환경운동연합의 대중화 전략을 잘 보여준다.

다. 자원동원방식을 보면, 녹색연합은 환경운동연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조직의 목표를 보면, '대안문명운동'과 같이 가치관 변동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녹색연합은 저항형 조직과의 연대활동에 매우 소극적이다. 이 조직의 핵심 지도부가 민주화운동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실련과 같이 변혁운동에 대한 대안운동으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전문 환경운동조직들은 정도 차이는 있지만 제도화의 과정을 밟아왔다. 굳이 구분하자면 경실련(환경개발센터)이 가장 제도화되었고 다음으로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의 순으로 제도화가 이루어졌다고 분석된다. 이러한 제도화는 정치적 기회구조가 개방될수록 빠르게 진행된다. 그러나 같은 정치적 기회구조 아래에서도 제도화의 정도는 다르게 나타난다. 이 글을 통해서 우리는 '조직의 이념이 근본적이고 저항적이며 동시에 조직의 자원동원능력이 클수록 제도화는 더디게 이루어진다'는 잠정적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조직의 이념이 저항적이라도 자원동원능력이 작으면 자원을 구하기 위해 국가나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포섭될 수도 있고, 혹은 완전히 주변화될 수도 있다.

6.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경실련 환경개발센터)의 활동을 통해 1990년대의 환경운동을 되돌아보았다. 환경운동조직은 지난 10년 동안 내적으로 크게 성장했고 외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게 되었고, 사회제도를 부분적으로 개혁했으며 환경의식의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 한마디로 환경운동은 환경을 정치적 의제로 만들었으며 시민사회의 중심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영향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와 지구의 환경은 여전히 별다른 개선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또한 환경주의 담화는 확산되었으나 실제 사회체계는 여전히 경제중심, 생산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환경운동은 '미완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전문 환경운동조직의 성장은 제도화 과정을 대가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모든 운동조직이 제도화된 것은 아니며, 경실련이 가장 제도화되었고 다음으로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의 순으로 제도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1990년대 환경운동의 경우, 제도화 과정과 제도 밖의 저항이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환경운동은 시장이 지배하는 사회로부터 생활과 생명이 중심이 되는 사회, 그리고 산업주의가 지배하는 사회로부터 생태주의가 현실 속에서 실현되는 사회로 변형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한국의 1990년대 환경운동은 '환경'이라는 새로운 이슈를 보편적 상징정치로 전화시키고 제도화된 조직을 통해 제도 안팎의 저항을 정치화하는 새로운 모델이다. 이러한 비정치적 정치화 과정을 확립한 환경운동은 단일 이슈 운동을 넘어서 한국 시민사회의 중심세력으로 자리잡았다²⁹⁾. 환경운동은 21세기 국가와 시민사회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 될 것이다.

29) 2000년 총선 시민연대에서 전문 환경운동조직이 수행한 역할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참고문헌

- 경실련 환경정의시민연대, 1998, 「환경정의」(팜플렛).
- 구도완, 1996, 「한국 환경운동의 사회학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문학과지성사
- 구도완, 1999, “1980년대 이후 한국인의 환경의식,” 「환경정책」 제7권 제2호.
- 김은미, 1999, “지역운동의 제도화,” 「경제와사회」 1999 여름, 제42호, 한울.
- 녹색연합, 1999, 「녹색연합 1999년도 전국 대의원 총회 자료집」
- 안종주, 2000, “기자와 환경운동가,” 「첨단 환경기술」 2000년 4월호
- 장원, 1999, “나의 환경운동 9년을 반성한다,” 「말」 1999년 11월호
- 환경운동연합, 1999, 「환경운동연합 제7차 대의원 총회 자료」
- 환경운동연합, 1999, 「환경운동」 1999년 11월호
- Downs, Anthony, 1972, “Up and down with ecology -the ‘the issue-attention cycle’,”
Public Interest vol. 28, pp. 38-50.
- McCarthy, John and Mayer N. Zald, 1977, “Resource Mobilization and Social Movements
-A Practical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82-6, pp.1212-41.

『1990년대 전문 환경운동조직의 특성』에 대한 논평

사회과학부
강미화

한국 환경운동의 역사, 시민의 환경의식의 변화과정, 주요 환경운동단체의 현황과 활동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글이었다. 그러나 글의 내용을 다소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다음 4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다.

(1) 시민의 '환경의식'과 '환경주의적 가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조심스럽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환경운동단체의 회원과 조직이 확장되었다는 사실을 들어 환경운동의 앞날을 밝게 전망하고 있다. 특히 설문조사의 결과를 들어 시민의 환경의식이 점차로 높아지고 환경주의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시민의식은 '경제중심패러다임'에서 '새로운 환경패러다임'으로 가치체계가 변화하는 첫단계에 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선 '환경의식'과 '환경주의적 가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다 정교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환경의식은 환경오염이나 피해에 대한 단순한 인식을 하는 선에서 머물 수도 있고, 환경운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사회운동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환경친화적인 실천을 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환경의식에 입각한 정치적 선택을 할 수도 있는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설문결과가 보여주듯이, 경제적인 풍요와 사회복지를 누리면서 쾌적한 환경도 아울러 누리고 싶은 자기이해관심의 확대를 과연 새로운 환경패러다임의 출현이라고 볼 수 있는가?

(2) 환경운동단체들을 평가할 때, 그들의 이념과 실천이 괴리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어느 사회나 환경문제를 고민할 때 가장 논란이 되는 문제는 경제성장과 환경보호 사이의 길항작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하는 점이다. 이런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환경단체들은 한번도 정면에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없었다. 만약 그랬다면, 그들의 이념과 실천 사이에 커다란 괴리가 있다는 사실이 금방 드러났을 것이다. 경제성장과 환경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① 환경파괴를 경제성장의 필연적인 부산물로 보고 사후처리에 집중하는 '성장우선주의', ② 경제성장과 환경의 조화를 꿈꾸는 '지속가능한 개발주의', ③ 경제성장의 가치가 생태보존의 가치보다 클 수 없다고 생각하는 '환경우선주의'로 나눈다면, 한국의 환경단체의 이념은 ②와 ③ 사이에 서있는 반면, 그들의 실천적 내용은 ①와 ② 사이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상이한 이념은 환경운동이 발전하면서 단계별로 거쳐가는 과정이 아니라, 애초에 어느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서 운동의 내용과 전략, 그들

이 제시하는 대안적인 사회발전패러다임이 달라지는 것이다. 환경운동의 역사가 10여년이 넘은 지금, 한국의 환경운동단체들도 이제는 자신들의 이념과 실천 사이의 괴리를 인식하고, 그것을 정리해서 일치시킬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주목하지 않은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3) 환경정당으로서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에 대한 전망이 없어서 아쉽다.

모든 시민운동은 분산화 또는 탈중심화를 실천하면서 다양화되면 될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시민운동이 성장을 거듭하다보면 그 중에는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압력 단체의 성격을 벗어나 정책정당으로의 변화를 시도하고자 하는 세력이 생성되기 마련이다. 이 문제는 이미 작년 겨울, 녹색연합을 중심으로 진지하게 논의된 적이 있는 걸로 안다. 필자는 한국 현실을 볼 때, 환경정당을 향한 독자적인 정치세력화의 필요성이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4) 통일이란 변수를 고려해 볼 때, 남북한 환경(정책)통합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한국 환경운동단체가 국제적 연대를 강조하는 것은 매우 올바른 문제의식이다. 하지만 한반도라는 지리적 환경을 공유하고 있는 북한과의 환경협력 또는 통일 시에 환경통합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별로 안하고 있는 것 같다. 환경운동연합이나 녹색연합 정도의 전국규모 환경단체라면 이 문제를 운동 안에 포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국 환경운동에 대한 필자의 평가에는 이 부분이 빠져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